

국내 여성중소기업과 남성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김경조*, 최진배**, 김태훈***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여성중소기업과 남성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보증기금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총 68,091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남성기업은 63,940개(93.9%)이며, 여성기업은 4,151개(6.1%)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은 분할표 검정, t-검정 등이다. 분석결과, 업력을 고려할 경우 여성기업의 보증사고의 가능성은 남성기업의 그것보다 낮다. 그리고 재무적 성과도 여성기업이 남성기업보다 좋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만 일치된다.

주제어: 여성기업, 기술보증기금, 분할표 검정, 경영성과

I. 서론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여성기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제구조가 변화되면서 여성기업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으며, 국민 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상승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발전의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여성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도 활기를 띠고 있다.¹⁾

* 제1저자, 경성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박사과정 (017pj@hanmail.net)

** 교신저자, 경성대학교 디지털비즈니스학부 교수 (jbchoi@ks.ac.kr)

*** 공동저자, 경성대학교 디지털비즈니스학부 교수 (kdbdc@ks.ac.kr) 사무실: 051-620-4456

1) 우리나라 여성기업 현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07)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 이후이다. 우리나라의 연구동향에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또는 양성평등의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성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또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유리천장(glass ceiling) 등은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다. 이러한 점을 중시하는 논의에서는 당연하게도 여성(또는 여성기업)이 당면하는 문제의 해소 내지는 완화가 주요 관심사로 등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고유한 특성이 중시되기도 한다. 여성기업인의 특성에 관한 논의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논의에서는 여성기업인이 경제적 목표와 함께 사회적 목표도 중시하며(김영옥, 1998; Brush, 1992), 비용지향적이라기보다는 인간지향적이며, 수직적 조직구조보다는 수평적 조직구조를 선호하고(Carter et al., 1997; Brush, 1992), 특히 위계적 관계보다 가족적 관계를 중시한다(김영옥, 1998)는 점을 강조한다.²⁾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기업의 여러 경영지표를 남성기업의 그것과 비교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개별기업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보증사고, 혁신성 그리고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경영성과를 검토하고 있다. 보증사고분석은 자료의 제약 상 생존분석 대신 수행하였다. 한편 표본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감안하여 혁신성도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성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등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 여기서는 기술보증기금의 개별기업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한편 여성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이 연구는 박성호·신용하(2000)의 주장, 즉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경영성과에 차이가

대한 개관으로는 정희선(1998) 및 김경조·최진배(2007) 참조. 한편 이 연구에서는 여성(또는 남성)기업을 통계청과 같이 여성(또는 남성)이 대표자로서 실제 경영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2)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강혜련(2003) 참조.

3) 이는 국내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국외의 연구경향에 대해서는 Lascocco et al.(1991) 참조.

없다는 주장을 확인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서론에 이어지는 2절은 여성기업의 경영성과와 관련된 기존논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3절은 실증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 4절은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

II. 기존논의의 검토

여성기업은 남성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직장과 사회에서 여성이 점하는 구조적 지위의 불평등에서 기인한다는 자유여권주의이론(liberal feminist theory)과 남성과 여성의 뿌리 깊은 성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사회적 여권주의이론(social feminist theory)으로 나뉜다.

여성기업의 낮은 성과가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야기된다는 주장은 여성기업이 창업자본과 인적자본의 축적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며, 수익성이 낮은 일부 서비스업 부문에 편재되어 있고 그리고 경쟁이 심한 산업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등을 중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Marlow & Patton(2005)에 의하면 적은 창업자금은 낮은 성과를 초래하는데, 남녀기업인이 창업 이전의 근무처에서 받던 임금수준과 고용기간의 차이는 창업자본과 인적자본의 차이를 낳는 주요 요인이다(Boden & Nucci, 2000). 즉, 고용되었을 때의 임금수준은 금융적 및 인적자본 획득에 영향을 주는데, 여성의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 금융자산 획득에 제약이 있으며, 경영 경험이 부족하고 총고용기간도 부족하여 인적자본의 양과 질에서 남성과 다르다.

동일한 요인은 창업기업의 생존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종업원 10인 이하의 신규 창업 여성중소기업과 남성중소기업의 생존율을 비교분석하는 Boden & Nucci(2000)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생존율은 남성기업의 그것에 비해 낮다. 창업자본의 규모가 크면 생존율도 높는데, 여성기업은 남성기업보다 창업자본과 규모가 작다. 그리고 인적자본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 창업 이전의 임금노동자로서의 근무기간은 처음 4~6년간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여성기업의 인적자본의 양(및 질)은 남성기업의

그것보다 낮다.⁴⁾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성기업은, 비록 최근 들어 제조업 등에 진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서비스업 특히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중점적으로 진출해 있다. 이들 분야는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고, 교육 등을 통해 기술을 습득할 필요성이 낮으며, 비교적 용이하게 사업경영에 필요한 지식 등을 습득할 수 있다. 그만큼 이들 산업분야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게 된다.⁵⁾ 이와 함께 여성기업이 당면하는 문제점으로 사회화 경험, 교육, 가족의 역할, 기회 부족, 불리한 사회적 네트워크, 자본조달 곤란, 정부규제 충족 곤란, 양질의 노동력 고용곤란 등도 거론된다.

일부에서는 남녀기업간 성과의 차이가 과장될 수 있음을 경계하기도 한다. 스웨덴의 중소기업(종업원 1~20인 사이)을 분석하는 Rietz & Henrekson (2000)에 의하면 영국과 미국에서의 실증결과와 마찬가지로 거시적 수준에서의 분석은 여성기업의 성과가 낮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그러나 구조적 요인을 고려할 경우 판매액을 제외하면 여성기업의 성과가 낮은 것은 아니며, 이윤, 고용 그리고 주문에서는 차이가 없다.⁶⁾ 한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여성기업의 낮은 성과가 여성기업이 성장 이외의 목표를 중시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하면서 성과문제에 대한 다른 차원에서의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 그들은 남성기업은 여성기업과는 달리 성장 지향적이며, 여성기업인은 자신의 기업을 독립하기 위한 그리고 일하는 생활을 통제하기 위한 기제로 간주하여 즉각적으로 가족의 이해관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말한다. Watson & Robinson(2003)과 Fasci & Valdez(1998)도 여성기업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경제적 척도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되며, 경제적 변수(이윤, 매출액, 성장률 등)가 여성기업의 여러 목표(도전, 자기결정, 가족과 일의 균형 등)의 하

4) 인적자본에는 마케팅, 재무관리, 자기감사, 고용된 노동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의 감독 등이 포함된다. 한편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에서도 창업자본의 규모와 인적자본의 크기 및 질적 수준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Carter et al.(1997) 참조.

5)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진출분야에 대한 설명으로는 김영옥·임희정(2006), 김정조·최진배(2007) 등을 참조.

6) 그들이 말하는 구조적인 요인에서의 차이란 여성기업이 남성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낮으며, 내수지향적이며 그리고 가계소비자 의존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나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측면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여권주의이론(social feminist theory)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똑같이 가치 있고 유효한 그렇지만 남성과는 상이한 자질, 가치 그리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초기의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화 과정의 변이에서 기인하는데, 가치가 의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이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상 성장의지도 성별로 다르게 된다.⁷⁾ 이러한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수용되고 있다. 예컨대 Carter et al.(1997)은 기업의 경제적 성과의 차이가 초기자원과 설립전략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즉, 동기와 의지의 차이가 전략의 차이를 낳고 이것이 다시 성과의 차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Anna et al.(2000)도 여성기업의 목표가 기업의 통상적인 목표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Buttner & Moore(1997)는 여성기업인에게도 이윤과 기업의 성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성공의 지표는 아니며, 여성기업인은 성공을 도전, 자기결정, 가정과 일에 대한 책임 사이의 균형으로 인식한다고 말한다.

Kalleberg & Leicht(1991)는 실증분석을 통해 생존율과 성공가능성에 있어 여성기업과 남성기업 사이에는 차이가 없으며,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인도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여성기업이 혁신적이 아니라는 가설도 기각한다. 한편 여성기업의 성과가 낮다고 주장하는 논의들이 성과측정 또는 비교변수의 선정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Watson(2002)은 호주 여성기업의 성과를 남성기업의 그것과 비교한다. 그에 따르면 남성기업의 산출지표(총소득과 이윤)가 여성기업의 그것보다 평균적으로 의미 있게 높지만, 투입지표(총자산과 소유자 지분)도 감안한 총자산대비 총소득, 자산수익률(ROA) 그리고 자본수익률(ROE)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산업위험, 기업의 업력 그리고 사업에 투입된 노동시간을 통제할 경우 여성기업의 성과와 남성기업의 그것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실증분석결과가 사회적 여권주의이론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평

7) 자세한 설명은 Cliff(1998) 참조. 한편 사회적 여권주의이론은 사회심리학(social psychology)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말한다. 전략의 선택은 개인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사회화 경험을 지니고 있다. 결국 사회화 경험의 차이가 여성기업과 남성기업 간 상이한 전략을 낳는다. 자세한 설명은 Carter et al.(1997) 참조.

균적으로) 여성들은 투자할 수 있는 또는 투자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본규모의 면에서 사업에 대해 상이한 접근을 한다. 그러나 투하자본에서 얻는 수익의 면에서 남성보다 덜 효율적이지는 않다.”

Cliff(1998)는 성과(=성장)에 대한 태도의 면에서 여성기업이 남성기업과 차이가 있는지 실증한다. 이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한다. 여성기업은 규모가 남성기업보다 적고 그에 따라 총수입, 종업원 수, 이윤, 그리고 성장률도 더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모와 성장률이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중심지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의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평가이다. 여성기업의 경우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려는 최대사업규모 값(maximum business size thresholds)을 설정하려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규모는 조직의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합리적인 양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일과 개인생활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러한 규모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성장을 저지하는 핵심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성기업인은 남성기업인에 비해 빠른 성장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더 많이 우려하여 사려 깊게 느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Watson & Robinson(2003)은 성과분석에서 위험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들은 중소기업에서는 기업위험과 개인위험이 분리되지 않아 성과평가에서 위험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⁸⁾, 그들에 의하면 위험을 조정하면 여성중소기업과 남성중소기업간 성과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이 결과는 기업의 업력, 산업효과, 기업규모를 통제해도 지속되며, 이는 여성기업이 자원의 사용과 기업성장에 신중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나아가 Buttner & Moore(1997)는 성과측정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그들에 의하면 여성기업은 창업동기로서 남성기업과는 달리 도전을 중시한다. 이 경우 사업성공의 척도로 자아실현이 가장 중요하게 된다. 개인적인 발전, 전문성 개발, 기능의 개선 등이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

8) 기업위험과 개인위험이 분리되지 않는 이유의 하나로 그들은 개인자산과 부를 기업대출을 얻기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편 위험을 조정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기대효용을 측정할 때 기대이윤과 함께 위험도 아울러 고려하는 재무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들은 위험을 이윤/이윤의 표준편차로 측정한다.

인 성과측정방식으로는 여성기업의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와는 별개로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자체가 여성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⁹⁾ 여성기업의 낮은 경제적 성과에 대한 상이한 평가는 상이한 정책제안을 낳는다. Boden & Nucci(2000)은 정책입안자들이 여성기업이 금융제약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으나 인적자본의 양과 질에 있어서 열위에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면서 잠재적 여성기업인에게 보완교육 그리고 조언(mentoring)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Cliff(1998)와 Watson & Robinson(2003)은 여성기업의 경우 저성장하는 소규모기업이 사려 깊은 선택의 결과이며 바람직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여성기업을 위한 성장지향적인 정책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III. 실증분석

1. 분석방법

표본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분할표 검정과 t-검정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업종별 성별 비율간 차이를 분할표 검정을 이용하고, 업력의 성간 동일 평균 비교를 위해 t-검정을 수행한다.¹⁰⁾

경영성과 분석을 위해, 성별 보증사고 비율간 차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정하고, 업력구간 수준에 따른 것과 혁신성에 따른 것도 분할표 검정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남녀기업간 재무비율 비교를 t-검정을 통해 수행한다.

외국에서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기업간 경영성과를 비교분석한 체계적인 논의가 거의 없다.¹¹⁾ 이러한 점에서 곽성호·신용하(2000)의 연구는

9) 이에 대한 개관으로는 김영옥·임희정(2006) 참조.

10) 다른 연구들은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표본의 제약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론을 채용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경영성과의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을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11)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은 있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에 기인하여 경영성과의 일부에 대한

의미가 크다. 그들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기업 100개와 여성기업 100개의 경영성과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경영성과지표로 사용된 것은 15개 재무비율이며, 이 재무비율을 생산성 요인, 유동성 요인, 수익성 요인, 성장성 요인, 레버리지 요인의 5개 요인으로 재구성하였다. 즉, 이를 t-검정을 이용하여 차이를 검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보증기금의 개별기업자료를 이용하여 남녀기업의 경영성과들을 비교분석하려 한다. 여기서 이용하는 자료는 1998년 이후의 것이며, 총 68,091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남성기업은 63,940개(93.9%)이며, 여성기업은 4,151개(6.1%)이다. 남성기업 중 재무자료가 있는 기업은 11,375개이며, 여성기업은 613개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은 분할표 검정, t-검정 등이다.

2. 표본의 특징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경영성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글의 자료는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할 때에만 자료를 갱신하기 때문에 개별기업 재무자료를 파악한 시점이 일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자료의 가치는 매우 높다. 전문적인 신용평가기관은 아니지만 기술보증기금은 보증 지원을 함에 있어 기업의 신용정보를 매우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재무정보를 파악하기가 매우 힘이 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녀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이 논문의 의미를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1998년 이후 재무자료 등이 파악된 기업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자료를 입수한 시점은 2006년 5월이다. 이 글에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두 업종의 남성기업과 여성기업간 차이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¹²⁾. 표본에서 여성기업이 점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점하는 비중에 미치지 못

설명에 머무르고 있다. 포괄적인 조사로는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01)(2003)(2005)이 있으며,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분석으로는 안승철 등(2005)이 있다.

12) 제조업과 도소매업 외에 다양한 업종이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위하여 두 업종에 한정하고 있다.

하는데, 업종별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표본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지원을 제공한 기업에 한정되어 신용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만 내포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표본의 대표성은 다소 떨어진다.

〈표 1〉 업종간 성별차이 분석

(단위: 개, %)

업종 \ 남녀기업		여성기업	남성기업	전체
제조업	빈도	2,497	42,907	45,404
	기대빈도	2,806.60	42,597.40	45,404
	업종의 %	5.50<16.5>	94.50<83.5>	100
	수정된 잔차	-12.1	12.1	-
도소매업	빈도	1,237	13,766	15,003
	기대빈도	927.40	14,075.60	15,003
	업종의 %	8.25<38.4>	91.75<61.6>	100
	수정된 잔차	12.1	-12.1	-
전체	빈도	3,734	56,673	60,407
	기대빈도	3,734	56,673	60,407
	업종의 %	6.18	93.82	100

주 : 1) < > 내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2005)의 남녀기업별 구성비.

2) χ^2 값은 146.573이며, p-value는 0.0001로 남녀별 업종 비율간 차이가 있다.

표본기업을 종업원 규모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종업원 50인 미만의 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종업원 10인 이하의 기업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여성기업의 종업원 규모는 남성기업보다 소규모이다. 업종별로 보면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소매업이 제조업보다 종업원 규모가 작다. 즉, 도소매업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80% 가까이 점유하고 있지만 제조업의 그것은 45%에 미치지 못한다. 업종별로 세분해서 살펴보아도 여성기업은 남성기업에 비해 영세한 편이다. 여성기업은 종업원 규모뿐 아니라 매출액에서도 남성기업에 미치지 못한다. 여성기업의 이러한 특성은 표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의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Cliff, 1998; Rietz & Hendekson, 2000). 한편 여성기업의 작은 규모는 초기 자본이 작은 데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사용하는 표본에는 초기자본의 규모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여성기업의 상대적 영세성이 무슨 요인에 기인하는지 파악하기 곤란하다.¹³⁾

〈표 2〉 표본기업의 종업원 규모별 구성비

(단위: %)

구분		0-4인	5-9인	10-19인	20-49인	50-100인	101인 이상	합계
제조업	여성기업	20.4	29.4	25.5	18.4	4.3	2.0	100.0
	남성기업	17.4	25.1	25.8	21.1	6.6	3.9	100.0
	계	17.6	25.3	25.8	21.0	6.5	3.8	100.0
도소매업	여성기업	59.7	27.3	9.8	2.7	0.3	0.1	100.0
	남성기업	48.8	30.2	14.2	5.6	1.0	0.3	100.0
	계	49.7	30.0	13.8	5.3	0.9	0.2	100.0
계	여성기업	32.2	28.7	21.2	13.5	3.1	1.4	100.0
	남성기업	24.0	26.1	23.7	17.7	5.4	3.1	100.0
	계	24.5	26.3	23.5	17.5	5.2	3.0	100.0

〈표 3〉 표본기업의 매출액 현황

(단위: 원)

성별	통계량	
여성기업	평균	1,881,664,731
	중위수	700,000,000
남성기업	평균	3,242,955,913
	중위수	1,000,000,000

13) 그리고 작은 초기자본은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여성기업의 성장, 기술혁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Marlow & Patton(2005), Coleman(2000), Carter & Peter(1998) 및 나중덕 등(2004) 참조.

한편 남녀기업의 업력을 비교해보면 남녀기업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남성기업의 업력은 평균 160개월로 평균 82개월인 여성기업보다 2배 정도 긴 업력을 가지고 있다¹⁴⁾. 그리고 남성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의 기업이 전체의 50.4%를 점하고 있지만 여성기업의 경우 점유율은 61.1%에 이르고 있다. 업종을 세분해 보아도 제조업과 도소매업 모두에서 여성기업의 업력이 남성기업에 비해 짧은 편이다. 한편 제조업보다는 도소매업에서 업력 10년 이하의 기업이 점하는 비중이 높다. 경제구조가 소프트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사정에 더하여 1997년 외환위기 구조조정이 상시화하면서 남편의 직장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그리고 대졸자의 취업난이 심해졌다는 점 등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⁵⁾

3. 경영성과 분석

Boden & Nucci(2000) 그리고 Carter et al.(1997)에 의하면 여성기업의 생존율이 남성기업보다 낮다.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남녀기업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를 비교해보았으나 기업주의 성별이 사고 여부에 유의한 차이를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종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도소매업의 경우 유의확률 7.4% 수준에서 남녀기업의 사고율에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외국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여성기업의 사고율이 남성기업의 그것보다 낮다.¹⁶⁾ 즉, 업종을 제어변수로 설정하여, 오즈비를 산출해보면, 도소매업의 경우 남성기업이 여성기업보다 13.9%(즉, 1.139) 더 부도위험이 높음을 알 수 있다.

14) 남녀기업별 업력간 차이 분석을 위해 t-검정을 수행하였다. t값은 64.118이며, 유의확률은 0.0001이다.

15) 우리나라의 논의로는 김영옥(1998), 박성호·신용하(2000), 강혜련(2003), 그리고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05, p.2) 참조.

16) 이충희(2001)도 여성기업의 여신건전성이 남성기업의 그것보다 높다고 말한다. 그는 K은행 거래기업 가운데 무수익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비율을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표 4〉 업종별(레이어) 남녀기업별 사고 여부¹⁷⁾

업종	사고여부		부도	건전	전체	오즈비
	남녀기업					
제조업	남성기업	빈도	7,933	34,914	42,907	0.950
		기대빈도	8,011.8	34,895.2	42,907	
		수정된 잔차	-1.0	1.0	-	
	여성기업	빈도	485	2,012	2,497	
		기대빈도	466.2	2,030.8	2,497.0	
		수정된 잔차	1.0	-1.0	-	
	전체	빈도	8,478	36,926	45,404	
		기대빈도	8,478	36,926	45,404	
도소매업	남성기업	빈도	3,166	10,600	13,766	1.139
		기대빈도	3,140.8	10,625.2	13,766.0	
		수정된 잔차	1.8	-1.8	-	
	여성기업	빈도	257	980	1,237	
		기대빈도	282.2	954.8	1,237	
		수정된 잔차	-1.8	1.8	-	
	전체	빈도	3,423	11,580	15,003	
		기대빈도	3,423	11,580	15,003	

17) 제조업의 χ^2 값은 0.981(단측검정 유의확률 0.167)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도소매업의 χ^2 값은 3.184(양측검정 유의확률 0.074)로 어느 정도 유의성이 있다. 즉, 도소매업의 경우, 남녀기업별 사고여부 비율이 다르며, 여성기업의 건전성비율이 더 높다.

〈표 5〉 업력구간별(레이어) 남녀기업별 사고여부

업력구간	사고여부		부도	건전	전체	오즈비
	남녀기업					
10년 미만	남성	빈도	5,726	18,338	24,064	1.215
		기대빈도	5,632.58	18,431.42	24,064	
		수정된 잔차	4.18	-4.18	-	
	여성	빈도	646	2,513	3,159	
		기대빈도	739.42	2,419.58	3,159	
		수정된 잔차	-4.18	4.18	-	
	전체	빈도	6,372	20,851	27,223	
		기대빈도	6,372	20,851	27,223	
10년 이상	남성	빈도	6,902	32,974	39,876	0.964
		기대빈도	6,907.17	32,968.83	39,876	
		수정된 잔차	-0.44	0.44	-	
	여성	빈도	177	815	992	
		기대빈도	171.83	820.17	992	
		수정된 잔차	0.44	-0.44	-	
	전체	빈도	7,079	33,789	40,868	
		기대빈도	7,079	33,789	40,868	

주: CMH(Cochran-Mantel-Haenszel)값은 12.1830이며, p-value는 0.001이다. 공통오즈비는 1.153이며, 브레슬로-데이(Breslow-Day) 검정통계량은 5.815이며, 유의확률은 0.016이다.

다음으로 사고여부별 업력 차이를 비교해보면, 건전기업을일수록 사고기업보다 업력이 길다. 즉, 건전기업을의 업력은 평균 160개월이지만 사고기업의 그것은 138개월이다.¹⁸⁾ 이어서 업력구간을 제어변수로 설정하여 남녀기업간 보증사고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분할표의 코크란-맨틀-헨젤(Cochran-Mantel-Haenszel) 검정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18) 사고여부별 업력간 차이 분석을 위해 t-검정을 수행하였다. t값은 24.164이며, 유의확률은 0.0001이다.

<표 5>는 업력구간 수준에 따른 남녀기업과 사고여부 간의 연관성을 조사한 것으로 CMH값에 의해 각 업력구간의 실제 오즈비가 1.0이라는 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공통오즈비는 1.153으로 추정되고 공통오즈비에서 변수 업력구간의 모든 수준에서 남녀기업-사고여부의 오즈비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도 또한 기각된다(브레슬로-데이 검정).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기업들의 잠재적 부도 가능성은 여성기업에 비하여 15.3%가량 더 높으며, 10년 미만인 경우만 고려해보면 21.5%가 더 높다.

이상에서 보듯이 기업주의 성별과 업력은 보증사고 여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업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업주의 성은 사고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업력수준을 제어변수로 설정하면, 남성기업의 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에서 본 t-검정 결과가 보여주듯이 업력이 보증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남녀기업 모두에서 일관되게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기업의 생존율이 남성기업의 그것보다 낮거나 차이가 없다는 Boden & Nucci(2000), Kalleberg & Leicht(1991) 등의 결과와 대비된다.

이어서 남녀기업간 혁신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공업소유권과 품질표시특허 보유 여부를 비교해보았다. 결과 남성기업은 평균 3.02개의 특허를 여성기업은 2.48개의 특허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등 혁신성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¹⁹⁾ 이 결과는 Kalleberg & Leicht(1991)의 결과와는 다른데,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기업은 혁신성에 있어 남성기업과 차이가 없다.

마지막으로 남녀기업간 경영성과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남녀기업간 재무비율을 비교해보았다. 표본이 제공하고 있는 재무비율은 모두 11개 항목이다.²⁰⁾ 그러나 남녀기업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는 평균 총자본경상이익률, 평균 총자산순이익률, 평균 총자본회전율, 평균 총자본투자효율의 4개에 불과하며, 이들 비율 모두 여성기업이 높다. 먼저 수익성을 나타내

19) 남녀기업별 혁신성 차이 분석을 위해 t-검정을 수행하였다. t값은 2.802이며, 유의확률은 0.005이다.

20)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총자본경상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본회전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매출액증가율 등이 그것이다. 한편 표본의 재무비율 파악시점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3개년 평균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는 평균 총자본경상이익률을 보면 여성기업은 8.0%이지만 남성기업은 5.5%이며, 평균 총자산순이익률은 각각 7.5%, 5.2%로 여성기업이 높다. 자본이용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평균 총자본회전율은 여성기업이 2.6인 반면 남성기업의 그것은 2.1이며, 평균 총자본투자효율은 여성기업이 57.3%으로 남성기업의 그것보다 7.3%포인트 높다. 이는 호주의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성과를 비교하고 있는 Watson(2002)의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광성호·신용하(2000)는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 중소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비교한 후 생산성요인, 유동성요인, 수익성요인, 성장성요인 그리고 레버리지요인 모두 5% 유의수준에서 남녀기업간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사실상 남녀기업간 수익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²¹⁾

〈표 6〉 남녀기업의 주요 재무비율 t-검정

구분	재무비율변수	여성기업평균	남성기업평균	t값	유의확률(양쪽)
수익성 비율	총자본경상이익률(%)	7.9978	5.5173	3.737	0.0001
	총자산순이익률(%)	7.5141	5.1730	3.635	0.0001
활동성 비율	총자본회전율(%)	2.6232	2.1308	4.562	0.0001
생산성 비율	총자본투자효율(%)	57.3135	50.0293	2.515	0.012

4. 합의-여성기업의 금융제약의 측면에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기업의 규모가 남성기업에 비해 영세하고 혁신성이 다소 뒤진다. 그러나 업력을 감안할 경우 보증사고 가능성은 여성기업이 남성기업보다 낮으며, 일부 재무적 성과에서 확인되듯이 경영성과도 남성기업보다 우수하다. 이 연구는 남녀기업간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이 연구의 이러한 한계는 기본적으로 자료상의

21) 광성호·신용하(2000)의 분석결과를 보면 수익성 요인(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경상이익률)의 유의확률이 0.059로 제시되어 있으며, 그들은 이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대립가설을 어느 한쪽이 큰 단측검정을 세우게 되면 유의확률값은 0.0295(=0.059/2)가 된다. 따라서 남녀기업간 수익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약에 기인한다. 그런데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 가운데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및 그에 따른 금융제약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여성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크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 이에 여기서는 여성기업의 경영성과가 남성기업의 그것보다 우수하다는 이 연구의 결과를 전제로 하여 여성기업의 금융제약과 관련된 문제를 간단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

여성기업은 은행신용에의 접근이 제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²⁾ 은행가인 Maltby에 의하면 여성기업은 금융적 및 사업적 성공에서 다른 기업과 별로 다르지 않지만 남성기업보다 생존력이 낮고 신뢰도도 낮은 것처럼 취급된다(Maltby, 1996). 은행가들이 여성기업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²³⁾ 여성기업이 금융업자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실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무엇보다 대출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성(性)을 배제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견해가 두 가지로 나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컨대 Brush(1992)와 Marlow & Patton(2005)은 차별받고 있다고 말한다. 반면 Carter et al.(1997)과 Carter & Peter(1998)는 공식적인 대출원천에의 접근에서 성별로 인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자금 의존도에서 여성기업은 남성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Coleman, 2000). 이는 어느 정도 여성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지만 여성기업이 금융제약에 직면하고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기도 하

22) 여성기업의 금융제약을 초래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여성기업이 위험회피적이라는 점이 중시되고 있다. 예컨대 Watson & Robinson(2003)은 호주 여성기업의 성과를 남성기업의 그것과 비교한 후 “여성은 위험회피적이며 안전을 위해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려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들은 나아가 여성기업에 대한 대출위험(loan risk)이 남성기업의 그것보다 낮다고 강조한다. 다른 한편 그들은 여성이 소규모로 기업을 시작하는 것도 위험선호와 관련이 있으며, 여성기업인의 이러한 속성은 업종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여성기업의 위험회피성향에 대한 논의로는 Cliff(1998)와 Powell & Ansic(1997)도 참조. 김영옥(199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기업인도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23) 고정관념이 가지는 문제점을 Heilman & Chen(2003)은 이렇게 말한다. 여성기업인은 남성기업인보다 더 사려 깊지만 은행은 여성기업이 남성기업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고정관념 때문인데, 사려 깊은 것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면 불확실하고 의존적이고 단호하지 않고 지나치게 조심하는 것으로 비쳐지며, 이 모든 것은 사업통찰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여성기업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대출을 꺼리게 된다.

다. 여기서 우리는 Maltby(1996)의 다음과 같은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은행들의 여성기업에 대한 대출에는 ‘심리적 저항’이 존재하는데, 이 때 객관적인 측면의 주관적인 해석과 평가, 고정관념, 성 역할 등의 주관적인 측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지어 은행은 남편의 보증을 요구하기도 하며, 여성의 사업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Coleman(2000)에 의하면 은행은 여성기업에게 보다 적은 대출금 규모에 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담보요구도 높다. 그리고 은행은 여성기업과의 거래기간도 짧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은행의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Coleman(2000)이 관계적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인데, Maltby(1996)도 관계적 금융의 확대를 중시하였다. 나아가 그는 은행이 여성기업에게 융자뿐 아니라 상담과 교육, 네트워크 기회까지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즉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교육, 지원, 네트워크 등에 대한 조언과 관계도 필요하다. 믿거나 말거나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는 소기업과 은행의 새로운 관계의 핵심에 있다.”(Maltby, 1996)

IV. 결론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매우 포괄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남녀기업의 신용위험, 경영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논의와 구분된다. 곽성호·신용하(2000)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도 우리나라의 여성기업의 경영성과가 남성기업의 그것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더 우수하며 신용위험도 낮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업종을 제조업과 도소매업으로 구분하여 업종별로 남녀기업간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경영성과가 사업주의 성별이 아닌 다른 변수로 설명이 가능한데,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한 한계도 가지고 있다.

여성기업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여성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 위험 선호에 대한 연구에서 분명하듯이 이제까지의 방어적 성격 또는 사회생활 등에서 여성이 당면하는 불리함을 강조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및 여성기업의 성격 및 장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매우 제한된 연구자만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경제에서 여성기업이 점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질적인 중요성도 또한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자들의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혜련(2003). 여성경영자의 관리역량과 기업성과, *경영논총*, 제21권, pp. 1-19.
- 곽성호·신용하(2000). 남성과 여성 중소기업의 재무적 성과비교, *한국중소기업학회지*, pp. 281-305.
- 김경조·최진배(2007). 여성기업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이론적 검토, *상경연구*, 제23권 제1호, pp. 21-43.
- 김영옥(1998). 여성의 창업과 기업경영: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옥·임희정(2006). 여성기업의 장애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제71권, pp. 107-140.
- 나중덕·김승호·최락열(2004). 여성창업기업의 환경 및 경영자 특성, 협력활동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연구*, 제26권 제1호, pp. 175-201.
- 안승철·박소영·김명화(2005). 여성기업인의 경영활동 특성에 관한 연구-대구·경북지역 여성기업을 중심으로-, *산경연구*, 제13권, pp. 95-129.
- 이충희(2001). 여성기업의 금융거래실태와 금융과제, *기은조사*, 2001년 겨울호, pp.43-71.
- 정희선(1998). 한국의 여성기업에 관한 연구동향과 향후 과제, *한국중소기업학회지*, 제20권 제2호, pp. 295-320.
-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01). 여성기업 실태조사 및 차별적 관행조사보고.
-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04).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07). 2006 여성기업실태조사.
- Anna, A. L., Chandler, G. N., Jansen, E. and Mero, N. P.(2000). Women Business Owners in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Industr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5, pp. 279-303.
- Boden, Jr, R. J. and Nucci, A. R.(2000). On the Survival Prospects of Men's and Women's New Business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5, pp. 347-362.
- Brush, C. G.(1992). Research on Women Business Owners: Past Trends, a New Perspective and Future Directions, *Entrepreneurship*:

- Theory and Practice*, Vol. 16, No. 4, pp. 5-30.
- Buttner, E. H. and Moore, D. P.(1997). Women's Organizational Exodus to Entrepreneurship: Self-reported Motivations and Correlates with Succ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 35, No. 1, pp. 34-46.
- Carter, S. and Rosa, P.(1998). The Financing of Male- and Female-owned Businesses,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Vol. 10, pp. 225-241.
- Carter, N. M., Williams, M. and Reynolds, P. D.(1997). Discontinuance among New Firms in Retail: the Influence of Initial Resources, Strategy, and Gende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2, pp. 125-145.
- Cliff, J. E.(1998). Does one Size Fit All?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towards Growth, Gender, and Business Siz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3, pp. 523-542.
- Coleman, S.(2000). Access to Capital and Terms of Credit: A Comparison of Men- and Women-owned Small Business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 38, No. 3, pp. 37-52.
- Fasci, M. A. and Valdez, J.(1998). A Performance Contrast of Male- and Female-owned Small Accounting Practic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 36, No. 3, pp. 1-7.
- Heilman, M. E. and Chen, J. J.(2003). Entrepreneurship as a Solution: the Allure of Self-employment for Women and Minorities,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Vol. 13, pp. 347-364.
- Kalleberg, A. L. and Leicht, K. T.(1991). Gender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Determinants of Small Business Survival and Succe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34, No. 1, pp. 136-161.
- Lascocco, K. A., Robinson, J., Hall, R. H. and Allen, J. K.(1991). Gender and Small Business Success: An Inquiry into Women's Relative Disadvantage, *Social Forces*, Vol. 70, No. 1, pp. 65-85.

- Maltby, S.(1996). Banks and the Woman Business Owner: Dissolving the Paradox, *Vital Speeches of the Day*, Vol. 62, No., 6, pp. 186-188.
- Marlow, S. and Patton, D.(2005). All Credit to Men? Entrepreneurship, Finance, and Gende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29, No., 6, pp. 717-735.
- Powell, M. and Ansic, D.(1997). Gender Differences in Risk Behavior in Financial Decision-making: An Experimental Analysi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18, pp. 605-628.
- Rietz, A. D. and Henrekson, M.(2000), Testing the Female Under-performance Hypothesis,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14, pp. 1-10.
- Watson, J.(2002),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Male- and Female-controlled Business: Relating Outputs to Input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26, No., 3, pp. 91-100.
- Watson, J. and Robinson, S.(2003), Adjusting for Risk in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Male- and Female-controlled SM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8, pp. 773-788.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formance of Female/Male Small and Medium Business Owners in Korea

Kyungjo Kim * · Jinbae Choi ** · Taehun Kim ***

This study has examined and compared the performances of the female small & medium business(SMB) owners with those of the male SMB owners in Korea by analyzing the data of 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KIBO). The total number of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s 68,091: 63,940(93.3%) male business owners and 4,151(6.1%) female business owners, respectively.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we performed contingency table test and t-test. The findings from the tests are: i) the possibility of bankruptcy is higher with male business owners when gender of owner and lengths of previous paid-employment experiences are factored in; ii) the financial performances of female business owners are better than those of male owners. These results coincided in part with past studies.

Key Words: female business owner, 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contingency table test, financial performance

* Kyungs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Candidate of Doctoral Degree in Economy (017pj@hanmail.net)

** Kyungsung University, Professor of Digital Business Department (jbchoi@ks.ac.kr)

*** Kyungsung University, Professor of Digital Business Department (kdbdc@ks.ac.kr)